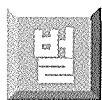


한화에너지

# 지속적 개혁속에서 가시적 성과 거두다

박종국

〈한화에너지 업무팀〉



씨 날이 쌀쌀해지는 걸 보니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나 보다. 하늘에서 흰눈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지금 나의 상황은 또 회사의 상황은 마치 다가오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다. 올해는 나의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난 해다. 16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최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회사란 무엇이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한화에너지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 같다.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불황속에 허덕였다. 정유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막대한 환차손과 과다한 유통비용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후유증 그리고 환경규제에 따른 고도화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더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유가의 자유화와 석유 유통업의 자유화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또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회사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96년 한화에너지의 주된 변화는 「개혁」이었다.

한화에너지는 오래전부터 제3의 개혁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승연 그룹회장은 과거 수준의 개혁이 아닌 「혁명적인 개혁」을 선언하고 모든 임직원이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폐기 있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한화에너지도 죽기를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한화에너지의 최근 상황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급

박하게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암울한 상황만 연출되는 것은 아니다. 한화에너지에게 '96년은 어느 해 못지 않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이다. 사내에서 그리고 사외에서도 한화에너지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리엔지니어링의 시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민간발전소의 확장, 해외사업의 강화 등 한화에너지의 움직임은 끊이지 않았다.

한화에너지가 올해 일구어낸 일중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연 조직의 개편이다. 관리직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잉여인원을 생산과 영업부문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갖추하고자 하는 것이 한화에너지 조직개편의 골자이다. 우선 한화에너지의 특성상 정유부문과 발전부문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생산부문의 조직을 기존의 일원화 체계에서 이원화 체계로 바꾸었다. 또한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결재단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엔지니어링도 추진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민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6월말 한화에너지는 60만kw급 가스터빈 발전소를 완공함으로써 120만kw급의 발전능력을 갖추게 되어 국가 전력 수급 안정에 한층 더 기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한화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민간화력발전부문을 집중육성하여 내년에는 135만kw의 발전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고,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될 LNG 자체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가스사업으로의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96년 새로운 생활주유소 「에너지프라

**한화에너지가 올해  
일구어낸 일중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연 조직의 개편  
이다. 관리직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잉여  
인원을 생산과 영업  
부문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갖추하고자 하는  
것이 한화에너지  
조직개편의 골자이다.**

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가졌다. 부천의 부원주유소에 「농협식품전문점」을 개설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기름만 넣는 주유소를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신양천 주유소에는 미니할인점 「프라자마트」를 개설했고 앞으로도 서울시내 직영주유소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편의점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주유소의 이미지를 심어줄 예정이다. 한화에너지의 소비자 접촉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여름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문산지역에서 한화에너지는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유류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동절기를 맞아 화훼단지의

경유가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인해 응고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훼농가의 하절기용 경유를 무상으로 동절기용으로 교체해 주기도 했다.

한화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유업체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한화에너지는 ISO1400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사랑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어 올해에도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한화에너지의 노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초등학교생들을 인천공장으로 초청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환경사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96년 한화에너지는 해외사업의 강화에도 힘썼다. 한

화에너지는 국제화라는 대명제 아래 페루와 알제리 그리고 북해를 중심으로 탐사작업 및 생산유전 매입 등의 유전개발 사업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연초 알제리의 이사완 광구에서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북해의 캡틴 유전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유 수급과 석유탐사사업의 위험 분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었다. 게다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사용될 중유 공급자로 낙찰받음으로써 한화에너지는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한화에너지는 최근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한화도스타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의 석유개발 및 일반 유통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한해였다. 지속적인 개혁 속에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한해였다. 지속적인 개혁 속에서 수많은 가시적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한화에너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96년이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서 수많은 가시적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한화에너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96년이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많은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결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회사에 좀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좀더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그룹 전체적인 상황이 혁명적인 개혁을 앞세워 다시 한 번 바쁘게 움직이고자 하고 있으니 이에 발맞추어 한화에너지도 가장 효과적인 개혁의 전략을 찾아 또다시 전진하는 한해

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모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한화에너지가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을 통해 21세기 국제 경쟁력을 지닌 종합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응어해설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1973년 10월의 4차 중동전이 불고온 제1차 석유위기 이후 OPEC의 일방적인 유가 인상 및 금수 조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의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1974년 11월 OECD의 결의에 따라 국제에너지 계획(International Energy Program : IEP)협정의 실행 기관으로 설립한 석유안정보장기구이다. 파리 OECD 본부

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 IEA에는 OECD회원국이면서 IEP협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OECD 회원국등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2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IEA는 IEP협정을 통해 비축의무(전년도 일평균 석유 순수입량의 90일분)를 그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석유소비억제 및 회원국 간 부족한 석유의 상호응통을 통해 산유국의 석유금

수 및 감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90년 쿠웨이트 사태 때 국제유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최근 IEA에서는 신에너지 정책목표의 제시를 통해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에너지 무역·투자의 국제협력 등도 강조하고 있다.